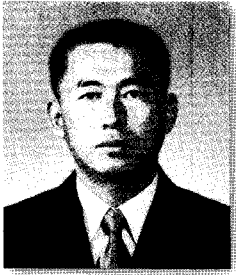


아름다운 느티나무 (1)



하태주 | 이학박사
천안연암대학

느티나무의 분류와 형태적 특징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학명은 *Zelkova serrata*이다. 종명 *serrata*는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많음을 나타낸다. 한자명은 괴목(槐木)이다. 느티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자라며 우리나라는 평남, 함남 이남의 해발 1200m이하에 자생하며 남쪽에 많이 분포하며 남쪽지방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 삼척 도계의 긴 잎 느티나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느티나무보다 잎이 훨씬 길다. 수고는 30m, 흉고직경이 3m를 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수형은 평정형이다. 가을의 단풍은 크게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분하여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다.

용도 및 관상미

느티나무는 정자목 또는 당산목 등으로 많은 수가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군락식재, 녹음수로 널리 식재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로수로도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수형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는 공원이나 아파트 입구의 악센트 식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은 고향하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나 팽나무 정도의 정자목을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정자나무는 도심의 삶속에서 고향을 생각해 주는 청량한 음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고향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또 이런 정자목은 우리 조상들에 있어서는 문화와 여유의 공간으로 조상의 얼과 혼이 깃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느티나무는 우리의 삶속에 깊이 새겨진 나무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한 나무임에 틀림없다.

느티나무는 새봄 어린가지에서 새잎이 펼쳐져 나오는 아름다움과 여름의 질푸른 녹음은 더위마저도 물러서게 하며 가을의 노란색과 붉은색의 단풍은 또 한번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는 나무이다.

느티나무는 수형이 단정하고 잔가지가 치밀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가을 단풍이 진 후 나뭇(裸木) 상태로도 아름다운 수형을 감상할 수 있다.

정지전정이 잘된 느티나무의 겨울 나뭇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늦은 겨울 잔가지에 눈꽃이 서리면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느티나무의 번식과 재배

대부분 느티나무재배는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일반 농가에서나 조경회사에서나 마찬가지다. 씨앗을 가을에 채취해서 선별하여 노천매장 후 봄에 파종상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단순한 재배방법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느티나무의 가을 단풍은 크게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어떤 것일까? 색상의 선호도를 알 필요가 있다. 만약 노란

색이라면? 아니면 붉은색이라면?

또 강원도 도계의 긴 잎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긴 잎 느티나무의 시장성은 다른 느티나무에 비해 어떨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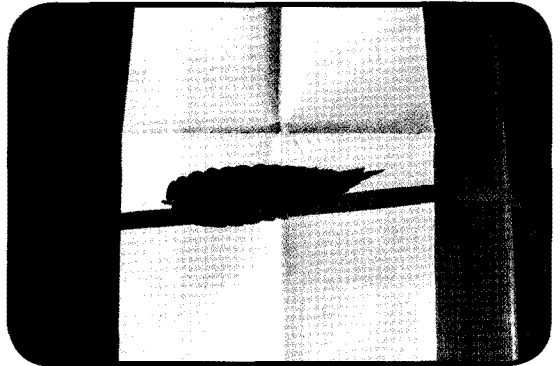
독자여러분은 지금까지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걸어 가면서 또는 자동차로 지나면서 느티나무의 단풍이 어떤지 가을의 느티나무 가로수 단풍색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눈여겨 본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런지.

필자가 지금까지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지나면서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것을 보면 노란색과 붉은색이 자연스럽게 혼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움은 있을지 모르나 통일미나 웅장미는 없다. 사실 자연스러움 이전에 느티나무 식재 시 단풍색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식재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약 어떤 길에 수 킬로미터를 노란색 단풍이 드는 느티나무나 붉은색 단풍이 드는 느티나무 중 한 가지 단풍색을 선택하여 식재하였다면 그 길은 어떨까?

아마 눈이 부실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노란색이라면 은행나무에서나 보이었던 노랑의 물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붉은색을 선택했다면 단풍나무에서나 보았을 붉은 물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도계의 긴 잎 느티나무는 어떨까? 도대체 잎이 얼마나 길기에 긴 잎 느티나무라고 까지 하는 것일까? 필자가 2002년 초 여름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처음으로 긴 잎 느티나무를 보았을 때 첫 소리가 와 길(長)다 라는 소리였다. 하나의 잎이 아닌 거대한 노거수 한구가 긴 잎을 드리우고 있는 광경은 정말 대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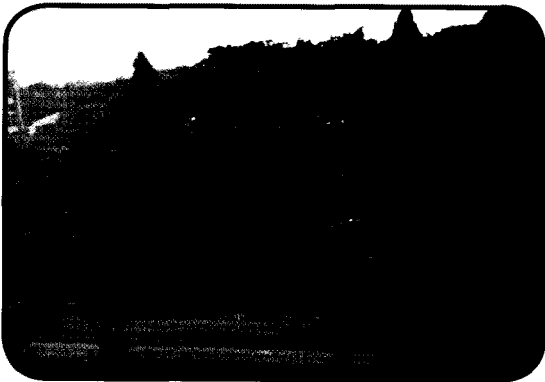
도계의 긴 잎 느티나무

보통의 느티나무 보다는 2배 가까이 긴 잎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붉은색, 노란색으로 단풍이 드는 느티나무, 다른 나무에 비해 잎이 긴 느티나무들을 특성화하여 품종으로 하여 재배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이런 특성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실생 번식으로 는 어려우므로 접목, 취목, 삼목 등 영양번식을 통해 번식하여야 어미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영양번식 방법 중에서도 접목에 의한 번식을 권하고자 한다.

접목번식을 하려면 우선 대목과 접수가 있어야 하므로 우선 이번 가을 내가 원하는 색깔의 접수를 얻기 위해 여러 곳의 느티나무를 보러 다녀야 할 것이다. 수형이 느티나무 고유수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잔가지의 밀생도가 높고 생장이 왕성하며 다른 나무에 비해 단풍의 빛깔이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개체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목은 실생1~2년생을 구입하든지 방치된 굵은 묘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좋다.



정원 붉은색단풍의 느티나무



분재군식의 노란색, 붉은색 느티나무